제 4 강 욕망하는 생산의 세 가지 종합 2

◆ 생산과 생산물, 기관 없는 신체

※ 학습목표
생산과 생산물, 기관 없는 신체를 이해한다

▲ 분열증의 복수성
리끌레르라고 하는 라깡의 제자는 정신분열증과 편집증(둘 다 정신병)을 다음과 같이 구분했습니다. 편집증은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고 분열증은 하나를 분자적 입자로 쪼개는 것이라고. 프로이트 역시 쉬레버의 '감각과민증'이 리비도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쉬레버의 <신의 빛살>은 해의 빛살과 신경줄, 그리고 정자가 통합된 것인데, 사실 리비도의 카텍시스가 바깥으로 향하여 뻗은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일 뿐이다."[1] 그의 욕망기계가 분열증적이라는 것은 그의 감각이 무수한 빛의 입자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병의 또 다른 형태인 편집증(parano1a)이 분자적으로 흩어진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특성이 있다면 분열증은 하나를 분자적 입자로 쪼개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2] 프로이트가 말한 것처럼 쉬레버의 망상은 하나의 것을 여러 개로 분해하는 특성을 갖습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에 관하여」에서 분열증에서의 대체물 형성과 신경증에서의 대체물 형성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분열증의 분자적 복수성(multiplicit)을 드러냅니다. 프로이트가 관찰하고 있던 환자 가운데 자신의 얼굴 피부 때문에 삶의 흥미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얼굴의 여드름을 짜내서 구멍을 만드는 데서 대단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구멍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히스테리환자라면 피부의 모공을 여성성기의 상징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경증(나아가 편집증) 환자의 무의식은 분자적 복수성을 하나의 응축된 표상으로 대체시킵니다. 이에 반해 분열증자의 무의식은 리비도적 흐름이 지닌 분자적 복수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처럼 분열증적 욕망기계는 분자적으로 흩어져 있는 부분대상들을 부품들로 사용합니다. 그것들은 마치 브리콜라쥬(bricolage)의 재료들처럼 자유롭게 모였다가 흩어지고 다시 모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베케트가 묘사하는 분열증적 연속장면이다: 조약돌들, 호주머니, 입: 구두, 파이프 담배의 통, 일정하지 않은 작은 젖은 짐꾸러미, 자전거의 벨의 뚜껑, 핸들의 절반…"(475) 이 부분대상들은 분열증자의 욕망기계에 의해 하나의 흐름을 만들지만 그것들은 분자적으로 분산되어 있던 것들이고, 잠시 모여있을 때도 언제나 이미 다른 기계들과 접속되어 있는 단편들입니다. 욕망생산의 접속적 종합은 결코 '전체'와 '통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편들을 항상 새로운 단편화 속에 들어가게 하는 능력이다"(22)

▲ 생산과 생산물
욕망기계가 생산한 것은 어떤 완결된 통일체가 아니라 새로운 흐름이고 새로운 기계와 연결된 단편들입니다. 이 생산 '과정' (processus)의 극한에서 생산(produre)과 생산물(produit)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산하는 활동과 그 결과로 생산된 것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분자적 생산에서 생산은 언제나 '생산의 생산'이기 때문에 그 둘은 구분되어 나타나지 않습니다. 형성하는 것과 기능하는 것, 생산하는 것과 생산된 것이 일치하는 것이 분자적 생산의 접속적 종합이 갖는 본성입니다.
분열증적 욕망기계가 흐름-절단을 생산할 때 그렇게 생산된 흐름과 그 흐름을 만드는 부분대상은 존재론적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입-기계가 젖가슴-기계로부터 젖의 흐름을 절단할 때 그렇게 해서 생산된 젖의 흐름과 흐름을 생산한 부분대상(입, 젖가슴)은 존재론적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부분대상은 흐름-절단 이전에 미리 있는 것이 아니라 흐름-절단으로부터 채취된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똥의 흐름과 음식물의 흐름이 겹쳐진 거식증 환자의 욕망기계에서 항문과 입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동일한 흐름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경증자의 욕망기계가 이럴진대 부분대상들을 분자적으로 사용하는 분열증자의 욕망기계는 어떻겠습니까?
분열증적 욕망의 극한에서 분자적 흐름은 부분대상들의 차이를 소멸시키고 "분화되지 않은 거대한 대상"(23)만을 남깁니다. 생산과 생산된 것, 흐름과 부분대상이 일치하는 2 항적 계열의 극한에서 우리는 제 3 항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자적 흐름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든 부분대상들이 분자화 되어 더 이상 기관적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 상태, 기관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절단'이 일어나지 않는 순수한 흐름의 상태, 저자들은 그것을 "기관 없는 충만한 신체"(le corps plein sans organes)라고 부릅니다.

▲ 등록의 이접적 종합

욕망생산의 두 번째 종합은 이 <기관 없는 신체>와 기계들 사이의 관계에서 출현합니다. <기관 없는 신체>란 문자 그대로 기관들이 없는 신체의 상태를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신체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겠지만, 분열증자들은 특이한 국면에서 자신의 신체를 이렇게 느낍니다. 분열증자이자 '잔혹연극'의 창시자로 유명한 앙또냉 앙르또(1896-1948)는 자신의 신체가 무정형의 흐름으로 가득 차서 모든 것을 행하는 상태로 변했다고 느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입도 없다. 혀도 없다. 이도 없다. 목구멍도 없다. 식도도 없다. 위도 없다. 배도 없다. 항문도 없다. 나는 나라고 하는 인간을 재구성한다."[3] 그는 또 「연극과 페스트」에서 페스트가 사람들의 신체와 도시를 그와 같은 상태로 만들며, 연극 또한 그래야 한다고 말합니다. 1730 년 4 월 페스트의 공포에 사로잡힌 생-레미 사르데뉴 부왕은 꿈 속에서 자신의 신체가 "뼛속까지 파괴되고 절멸되어" 모든 기관이 "탄소로 변형되는" 것처럼 느낍니다.[4] 또한 도시에 거처를 정한 페스트는 "잘 정돈되어 있던 환경들을 파괴시킨다. 그것에는 도로행정도 군대도 경찰도 시 직원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잔혹연극론』, 36) 페스트는 사람의 신체뿐만 아니라 행정, 군대, 경찰 등 도시의 기관들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페스트는 도시를 기관들 없는 신체로 만듭니다. 아르또는 이 광란의 파국에서 정신의 해방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내장에서 발동하는 병, 그들의 모든 조직 속에서 진행되는 병은 갑자기 정신을 해방시킨다."(『잔혹연극론』, 37) "완전한 사회적 재난, 조직의 무질서, 범람하는 악덕들, 영혼을 짓누르고 영혼을 극단으로 몰고 가는 일종의 총체적 푸닥거리 등은 다른 관점으로 보면 절정에 달한 힘의 상태"(『잔혹연극론』, 42)를 나타냅니다. 아르또는 연극도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연극은 잠자는 감각을 뒤흔든다. 억눌려 있던 무의식을 해방시키고, 일종의 잠재적인 반항을 밖으로 밀어낸다"(43) "잠재하는 잔혹성을 밑바닥으로부터 밖을 향해 밀어내고, 폭로하며 주창하기 때문에"(46) 연극의 본질은 페스트와 흡사하다고 합니다.

▲ 편집증 기계

법원장 쉬레버 역시 편집증 상태에서 비슷한 신체상태로 돌입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위가 없이, 장이 없이, 폐가 거의 없는 상태로, 식도가 갈라진 채로, 방광이 없이, 또는 갈비뼈가 부서진 채로 살았다"(「편집증 환자 쉬레버」, 291) 정신의학에서는 이런 증상 다발을 '긴장병'(catatonie)이라고 부릅니다. 최근에 개봉된 박찬욱 감독의 <사이보그지만 괜찮아>에서 자신의 신체를 기계로 여겨 음식물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자 주인공에게 내려진 진단명이 '카타토니아'였습니다. 이처럼 기관들 없는 신체는 유기체를 거부합니다. 유기체란 기관들의 기능적 통일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녀의 욕망기계가 작동을 멈춘 상태라는 것입니다. 들뢰즈-가따리가 기관들 없는 신체의 한 가지 양태를 "반생산의 무정형적 유체"(478)로 정의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생산을 멈춘 기계, 기계(기관)들의 접속을 통한 생산활동이 정지된 상태의 욕망기계가 기관들 없는 신체입니다.

▲ 기적을 행하는 기계

기관들 없는 신체의 또 다른 양태는 '생산'의 터전입니다. 아르또가 기관들 없는 신체에서 발견한 것은 완전한 무(無)나 죽음의 이미지가 아니라,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가능한 잠재성과 물질화된 성질 속에 존재하는 것 사이의 연결을 재구성"(『잔혹연극론』, 42)하는 "절정에 달한 힘의 상태"입니다. 기관들 없는 신체는 인체, 도시, 정신의 유기적 통일성이 파괴된 상태입니다. 그 파괴에는 어떤 강력한 힘이 내재해 있습니다. 그 잠재적 힘의 발현은 이전의 존재-부재, 현실성-가능성의 관계를 재구성하여 전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합니다.

---

1)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명희 역, 『늑대인간』, 「편집증 환자 쉬레버」, 열린책들, 2004, 364 쪽.
2) 르클레르는 편집증과 정신분열증의 차이를 기표와 기의의 결합방식에서 찾는다. "정신분열증 환자는 모든 기표로 하나의 개념 혹은 기의를 나타낸다....편집증적 주체는 하나의 기표로 어떤 기의라도 나타낸다." 아니카 르메르, 이미선 역, 『자크 라캉』, 문예출판사, 1994, 334 쪽.
3) Artaud, in 84, n2 5-6, 1948, 들뢰즈, 『의미의 논리』, 173 쪽 재인용.
4) 앙토냉 아르토, 박형섭 역, 『잔혹 연극론』, 「연극과 페스트」,

현대미학사, 1995, 26 쪽.

◆ 등록과 생산, 이접과 재생산

※ 학습목표
등록과 생산, 이접과 재생산의 개념을 이해한다

▲ 기적을 행하는 기계
불가능한 것들이 실현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관계들이 도처에서 출현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를 '혼돈'(渾沌)이라 부릅니다. 괜히 잘한다고 일곱 개의 구멍(눈, 코, 입, 귀)을 뚫어 주었더니 죽어버렸다는 『장자』, 「응제왕」 편의 그 혼돈 말입니다.
쉬레버는 기관들을 배척하는 편집증적 신체 이후 곧바로 새로운 양태의 <기관 없는 신체>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신성한 기적(빛살)이 파괴되었던 것을 재생시켰다."(「편집증 환자 쉬레버」, 291) 신의 광선들을 빨아들이는 쉬레버의 신체 위에서 기관들이 재생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행하는 기계로서의 <기관 없는 신체>는 이제 생산의 유사-원인(quasi-cause)처럼 나타납니다. 쉬레버에게 모든 존재의 원인과 만사의 법칙은 신의 신경줄을 빨아들인 자신의 '태양항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이라는 신체가 모든 생산의 원인처럼 일어납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작동의 표현으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 등록과 생산
생산이 '생산의 생산'이 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생산이 '과정'으로서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이 <기관 없는 신체> 때문입니다. <기관 없는 신체>가 생산의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은 '등록'(enregistrement)입니다. <기관 없는 신체>는 생산의 부품들인 기관-기계들이 등록되는 표면입니다. 등록된다는 것은 달라붙는다는 뜻입니다. 생산의 과정에서 생산의 직접적 부품들은 <기관 없는 신체>에 달라붙습니다. 생산의 유사-원인으로서의 <기관 없는 신체>에 등록되지 않는 기관-기계들은 존재-이유(raison d'être)를 상실합니다. 기계들이 <기관 없는 신체>에 등록되고서야 생산은 '재생산'을 보장받습니다.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에서 이 '등록'은 분배와 교환으로 표현됩니다. "분배는 생산물에 참여하는 비율을 결정하고, 교환은 개인이 그에게 할당된 몫과 바꾸고자 하는 특수한 생산물을 그에게 가져다 준다."(「정치경제학 비판 서문」, 21) 생산된 것(생산물, 할당된 몫)에 대한 분배양식과 교환양식은 생산에 대한 참여 방식에 의해 규정됩니다. 지대를 분배받느냐 임금을 분배받느냐 이윤을 분배받느냐 하는 것은 생산에 참여하는 작인(agent)이 토지냐, 노동이냐, 자본이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교환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할당된 몫을 가지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바꾸는 것이 교환입니다.)

이처럼 분배 및 교환양식은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인간과 사물의 위치를 결정하는 양식에 의해 결정되며, 이 위치 결정양식에 의해서 일반적 생산은 특수한 사회적 생산양식이 됩니다. 들뢰즈-가따리는 '생산 내 위치 결정'을 '등록'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위치결정의 대상은 인간만이 아닙니다. 토지, 노동, 도구, 생산물, 자연 등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등록에 참여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자연적 존재가 아니라, 생산에 참여한여 노동력을 제공하는 기계로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 이접과 재생산
저자들은 이 등록의 양식을 이접적 종합(la synthèse disjonctive)이라 부릅니다. "기계들은 그 수만큼의 이접점들로서 기관들 없는 신체에 달라붙는데, 이 점들 사이에는 새로운 종합들의 전체 망이 짜여져 표면을 바둑판 모양으로 구획 짓는다"(29) 바둑판은 훌륭한 설명 도구가 됩니다. 신선들의 바둑판처럼 아무런 금이 그어지지 않은 바둑판을 상상해 봅시다. 거기에 바둑알을 한번에 하나씩 둡니다. 그렇게 연결된 바둑알은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의 궤적 위에 선이 그어집니다. 한참 진행되면 바둑판 위에는 여러 방향의 선들이 교차하면서 망이 형성됩니다. 이제 한 개의 바둑알은 바로 전에 둔 바둑알과만 연결된 게 아니라 그전에 둔

바둑알과도 연결됩니다. 서로 다른 방향의 선들이 교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들이 교차하면서 바둑판 위에는 점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점들은 좌표를 형성하여 그 다음부터는 이 좌표 위에서 바둑을 두게 됩니다. 이접적 종합이란 이 점들 사이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이접적 종합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접속적 종합이 형성하는 흐름은 이제 점들의 연쇄, 혹은 '사슬'(chane)처럼 나타납니다. 생산이 흐름의 절단이라면, 등록은 연쇄의 절단입니다. 또한 생산이 흐름을 절단하면서 채취(prélèvement)하는 과정이라면 등록은 연쇄를 절단하면서 이탈(détachement)시키는 과정입니다.
'détachement'이란 단어는 '푼다'는 뜻입니다. 마치 DNA 의 이중사슬이 풀어지면서 복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등록은 <기관 없는 신체>상의 연쇄들을 풀어내면서 생산을 복제합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의 생산은 '생산의 생산', 즉 '재생산'을 가능케 합니다.
또한 détachement은 '따다, 떼어내다'란 뜻도 지닙니다. 생산이 무한한 흐름들로부터의 절단인 것처럼, 등록은 무한한 연쇄로부터의 이탈입니다. 가령, 입은 음식물의 흐름 위에서 소화계의 연쇄 위에 있을 수도 있지만, 거식증환자처럼 똥-항문과 연쇄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관념적으로 이 연쇄는 무한합니다. 입이 특정한 생산기관이 되려면 무한한 연쇄들로부터 떼어져 국지적인 연쇄를 이뤄야 합니다. 그래야 음식물의 흐름을 절단-채취하거나 공기의 흐름을 절단-채취하거나 똥의 흐름을 절단하는 기관기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으로부터의 채취는 연쇄로부터의 이탈을 내포한다."(66)

▲ 분열증적 이접
사회적 생산양식에 있어서 이접적 종합은 배타택일적(exclusif)입니다. 자본이 자신의 기계들을 이접적으로 종합하는 방식을 봅시다. 거기서 인간-기계는 두 종류로 분리됩니다. 자본의 인격적 담지자로서의 자본가와 그에게 노동력을 판매한 노동자로. 노동자는 생산수단으로 등록된 기관-기계에 접속하여 자신의 노동력을 소비하고, 그렇게 생산된 재화는 시장에서 상품으로 등록되어 노동자의 할당몫(임금)과 교환됩니다.
자본가는 이와 같은 일련의 생산기관들을 자본의 신체 위에 등록시킨 후 자신의 할당몫(이윤)을 획득하여 다시 노동력과 원료와 필요하면 추가 생산수단으로 교환하고 나머지는 소비합니다. 이 두 계열은 서로 배타적이라서 동시에 노동자의 이접점에서 자본가의 이접점으로 횡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배타적 이접을 명제로 표현하면 'ou bien…이거나…'가 됩니다.
이에 반해 분열증적 욕망기계는 이접적 종합을 포함적(inclusif)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포함적 이접을 명제로 표현하면 'soit…이든지…'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인간은 '남자이거나 여자', '아버지이거나 자식'이지만, 분열증자는 '남자이든 여자이든', '아버지이든 자식이든' 어느 하나의 위치에 고정되지 않고 여기서 저기로 횡단합니다. 쉬레버는 남자의 자리에 있다가 여자의 자리에 있고, 부모의 자리에 있다가 아들의 자리에 있으며, 죽었는가 하면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두 이접점 사이의 거리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분열증자가 자신을 남자이자 여자, 부모이자 자식이라고 느낄 때 그것은 서로 다른 위치를 동일화시킨 게 아닙니다. 분열증자는 남자와 여자, 무모와 자식이라는 이접점들 사이의 거리를 횡단한 것이지 거리를 축소시킨 게 아닙니다.
들뢰즈-가따리는 이접점들 사이의 거리는 "분해할 수 없는 거리"(distance indécomposable)라고 합니다. 분해할 수 없다는 것은 분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이 거리는 외연적 거리가 아니라 내포적 거리입니다. 이 내포적(intensive: 강도적) 거리는 강도=0 를 기준으로 멀고 가까움의 정도(degree)로만 표시될 뿐 확정된 두 점 사이의 외연적 간격이 아닙니다. 이 강도=0 의 상태가 <기관 없는 신체>입니다. 거기에 기관들이 달라붙을 때 이접점들 사이에 거리가 생기고, 강도=0 의 평면이 되면 거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분열증자들이 이접점들 사이의 분해할 수 없는 거리를 횡단하는 것은 그들의 <기관 없는 신체>가 기관들을 끌어 당겼다가 반발하는 인력과 척력, 혹은 기관들을 내뿜었다가 빨아들이는 날숨과 들숨의 박동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다른 배치의 기계를 생산합니다.
어쨌든 이건 기적이며, 기적은 신성한 힘에 의해 일어납니다. 그래서 등록의 이접적 종합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신성한 힘, 즉 <누멘 Numen: 神力>입니다. "욕망하는 생산의 접속적 노동을 리비도(libido)라 부른다면, 이 에너지의 한 부분이 이접적 등기의 에너지(누멘 Numen)으로 변환된다고 말할 수 있다."(30)
자본 같은 사회적 신체가 생산의 유사원인처럼 나타나든, 분열증자의 신체처럼 매순간 다른 형태의 생산을 하던 그것은 기적을 행하는 하나의 신비로운 힘으로 나타납니다.

◆ 통접적 종합

※ 학습목표
통접적 종합의 개념을 이해한다

▲ 소비와 생산
총괄적 생산의 과정은 소비의 통접적 종합에서 완결됩니다. 소비란 등록에 의해 분배된 몫을 "향유, 즉 개인적 전유의 대상"(「정치경제학 비판 서문」, 21)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소비의 과정은 생산의 과정 '이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산은 소비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창조하여 소비를 매개한다. 그러나 소비는 제생산물에게 그들의 주체를 창조해 주면서 생산을 매개한다. 생산물은 비로소 소비에서 마지막 완결을 획득하는 것이다."(「정치경제학 비판 서문」, 23)
소비에 와서야 생산물은 진정한 생산물이 됩니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먹어야 짜다'고 한 벌의 옷은 착용되어야 진정한 옷이고, 집은 사람이 살아야 집입니다. 또한, 소비는 욕구의 대상을 생산에 줌으로써 생산의 대상을 "주관적 형태로 창조"합니다. 조지프 리스터가 개발한 외과용 소독제가 '리스터라인' 구강청정제라는 상품으로 생산되기 위해서는 '입냄새'를 제거하고 싶다는 소비의 욕구를 창조해야, 문자 그대로 '입냄새'를 창조해야 했습니다. 반대로, 생산 역시 소비에 욕구의 대상을 줍니다. 리스터라인이 생산되고 나서야 입냄새 제거의 욕구가 생겼습니다. 사용가치란 생산되는 것이지 본능적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배고픔은 배고픔이이다. 그러나 포크와 칼로 삶은 고기를 먹어서 충족될 배고픔은 손, 손톱, 이빨로 날고리를 삼켜서 채우는 배고픔과는 다른 배고픔이다. 그러므로 생산은 소비자를 창조한다."(「정치경제학 비판 서문」, 24)

▲ 소비와 향유, 주체
들뢰즈-가따리는 소비의 종합이 "주체와 향유 le sujet et jouissance"의 생산이라고 말합니다. 소비는 그 자체로 향유입니다. 음식을 소비한다는 것은 음식의 맛을 향유하는 것이고, 집을 소비한다는 것은 집의 가치를 향유하는 것입니다. 노동력을 소비하는 것 역시 노동력의 가치를 향유하는 것입니다. 노동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괴롭지만, 그것을 전유하는 자본가는 즐겁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노동자 역시 노동력의 소비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실직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본의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 자본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기쁘게 합니다. 메저키스트처럼 자신이 타자의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을 향유할 때 그는 고통을 향유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기쁨의 표상적 차이와 무관하게 향유는 관능적입니다. 소비의 에너지를 '관능'(voluptas)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리비도의 한 부분이 등록의 에너지(누멘)으로 변모된 것과 마찬가지로, 후자의 한 부분은 소비의 에너지(볼룹타스 Voluptas)로 변모한다."(36)
소비의 생산, 즉 향유의 생산에 와서야 주체가 나타납니다. 생산의 생산이나 등록의 생산에서는 아직 주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흐름의 생산-절단에서 인간은 부분대상(객체)이지 생산의 주체가 아닙니다. "생산에서는 인간이 객체화된다."(「정치경제학 비판 서문」, 21) 등록의 생산에서도 인간은 이접점들의 '위치'이지 등록의 주체가 아닙니다. 오직 소비의 생산에서야 인간은 향유의 주체로 나타납니다. '나'라고 부르는 존재로서의 인간. 마르크스가 "소비는 개별성을 이룬다"(「정치경제학 비판 서문」, 21)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산의 주체는 일반적 자연이며, 분배와 교환의 주체는 특수한 사회이이며, 소비의 주체는 구체적 개인입니다. '나', 즉 주체는 이렇게 향락의 생산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 통접적 종합
생산물이 소비에 와서 완결된다는 것은 소비의 종합이 갖는 통접적 성격을 말해줍니다.
통접(conjonction)이란 분리된 것들을 합한다는 뜻입니다. 접속이 '부분'을 '부분'에 연결시키고, 이접이 그 연결선을 끊어서 '전체의 부분들'로 분산시키는 것이라면, 통접은 분산된 부분들을 통합하는 종합입니다.
통접적 종합의 명제형식은 "그러므로 이것은 c'est donc…"이 됩니다. 이 명제에서 주어는 '이것'이지 '나'가 아닙니다. 통접적 종합에 의해 나타나는 '나'는 주어가 아니라 술어 자리에 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나이다. c'est donc moi'
주체는 향락의 주체이지만 종합의 주체는 아닙니다. 종합의 주체는 여전히 욕망기계입니다. 주체는 욕망기계의 생산과정에서 마지막에 파생된 잔여물일 뿐입니다. 따라서 소비의 통접적 종합이 '그러므로 이것이 나이다…'의 완결형태를 취한다는 것을 생산의 과정이 주체의 형성에서 종결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통접적 종합은 생산 과정의 실현(accomplicement)이지, 그 과정의 종결(fin)도, 목표(but)도 아닙니다. 생산의 과정은 목적론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과정으로서의 생산은 과정의 '실현'을 가질 뿐 과정의 목표나 끝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끝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과정 자체를 목표로 삼아서 '무한한 계속'(continuation l'infini)으로 이해서도 안 됩니다. 생산의 과정은 '목표' 자체를 모릅니다. 과정은 오직 현실적 '실현'만을 압니다. 마르크스가 '생산물은 소비에서 완결을 획득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생산물이 지닌 잠재적 가치가 소비에 의해 실현된다는 것이지, 생산물이 소비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의 실현이란 잠재성의 현실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목적에서 출발하여 목표로 끝나는 목적론의 운동의 종결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비에서 과정이 실현된다는 것은 과정의 중단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소비의 종합은 생산의 종합을 실현함으로써 생산의 과정을 진행시킵니다.

▲ 독신기계

들뢰즈와 가따리는 소비의 통접적 종합을 행하는 욕망기계를 '독신 기계'(machine célibataire)라고 부릅니다. 쉬레버는 신의 빛살을 빨아들여 기적을 행할 때 자신이 여성화되었다고 느낍니다. "나는 가끔 웃통을 벗고 리본이나 가짜 목걸이 같은 잡다한 여자용 장신구를 걸치고는 거울 앞이나 다른 곳에 서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전문가의 보고서에도 써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내가 혼자 있을 때에만 일어났다. 이제까지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편집증환자 쉬레버」, 295) 그의 몸 속에 있는 빛살은 실재로 그의 몸에서 여자의 젖가슴이나 성기를 느끼게 했습니다. 이 여성-되기는 철저하게 혼자 있을 때 즉 독신자-되기를 통해 이뤄집니다. 쉬레버의 독신기계는 여성적이지만 쾌락을 위해 남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쾌락을 생산합니다. 그 자동-에로티즘(auto-érotique)을 통해 그는 새로운 결연, 새로운 연대(nouvelle alliance)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낳을"(「편집증환자 쉬레버」, 291)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쾌락하고 스스로 생산하면서 새로운 연대를 만들어 나가는 존재가 독신기계입니다.
그렇다면 독신기계는 관능적 쾌락을 생산합니다. 관능적 쾌락이란 무엇일까요? 프로이트가 말한 것처럼 그것은 강도적 양 (quantités intensives)입니다. 쉬레버의 독신기계는 그의 신체를 강도적 양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는 자신의 피부 밑에 강도적 양이 흘러 다니는 것을 실재로 느낍니다. 특히 젖가슴에서. 그는 자신이 여자가 되었다고 느낍니다. 그가 자신을 여자로 느낄 때 그는 자신의 신체 위에 형성된 강도들의 관능적 효과를 소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다'라는 통접적 종합이 이뤄집니다. 여기서 '이것'이 지칭하는 것은 그의 신체 위에 형성된 강도들의 지대(zone)이지 성별 명칭으로서의 '여자'가 아닙니다.

▲ 강도들의 상태와 고유명사

<기관 없는 신체>가 박동함에 따라, 즉 <기관 없는 신체>가 기관들을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힘의 비율에 따라 그의 <기관 없는 신체> 위에는 강도=0 에서 출발하는 다양한 강도들의 지대가 형성됩니다. 그에 따라 기관들은 새로운 배치를 이루고 그는 새로운 강도들의 분포상태를 소비하면서 새로운 이름들을 갖게 됩니다. 욕망기계로서의 <기관 없는 신체>는 역사상의 모든 사건들을 자신의 표면에 등록시키며, 그때마다 신체의 표면에 형성된 강도적 상태를 관능적으로 소비하는 주체를 탄생시킵니다.
분열증자가 '그래서 나는 시저다. 그래서 나는 나폴레옹이다'라로 말할 때 그들은 자신을 시저나 나폴레옹 같은 역사적 인물과 동일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관 없는 신체> 상의 강도적 상태를 역사적 인물들의 고유명사로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뭔가와 동일시한다면 그것은 역사적 인물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들의 고유명사가 주는 '효과'입니다. "고유명사는 잠재력 potentiels 의 장에서 어떤 효과들을 지시한다."(137) 분열증자는 자신의 <기관 없는 신체> 위에 형성된 강도들의 상태를 역사적 고유명사의 효과와 일치시킨 것입니다. 니체가 "나의 에세이들 중 어느 하나에 나오는 볼테르라는 이름은 나를 지칭하는 것이다"[5]라고 말할 때 그는 볼테르의 "정신적 귀족"을 소비하면서 볼테르가 됩니다. 니체의 자아 le moi-Nietzsche 는 없습니다. "일련의 상태들을 통과하는, 그리고 이 상태들에다 역사상의 이름들을 그대로 붙이는 니체적 주체le sujet-Nietzschéen가 있을 뿐이다"(41) 이렇게 일관성이 없고서야 어떻게 사느냐 할지 모르겠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신중성, 그것은 바로 <하나의 것>이 되기 위하여 나는 <여러 개>였으며, <여러 장소>에 있었다는 점이다"(「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을 쓰는가」, 256) 여러 개의 '나'를 낭비하는 것, 여러 장소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은 하나의 '나'가 되기 위한 일관된 계획(plan)입니다. 일관성은 동일성의 반복이 아니라 차이의 반복, 매번 다른 존재로의 윤회, 매번 다른 '나'로의 영원회귀 속에 있습니다.

5) 프리드리히 니체, 김태현 역, 『도덕의 계부/이사람을 보라』,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을 쓰는가」, 『보라』, 청하, 1980, 257 쪽.